

SM, 2004년 폭등 900달러 눈앞!

12월 FOR Korea 800달러에서 2004년 1월16일 865-875달러로

지난주 아시아 SM 시장은 중국 춘절을 비롯한 설연휴를 맞이해 거래가 잠잠해 1월23일 FOB Korea 톤당 865-875달러를 유지함으로써 2003년 12월26일 795-805달러 대비 약 70달러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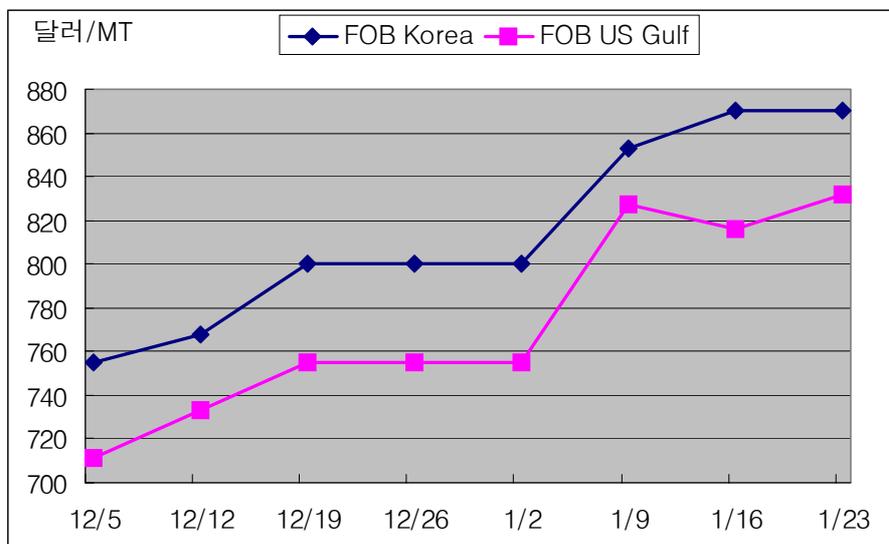
SM 가격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2일까지 3주 연속 FOB Korea 톤당 800달러 수준의 보합세를 형성했으나 Naphtha를 비롯해 원유, Benzene 및 Ethylene 가격상승에 힘입어 1월9일 853달러로 50달러 이상 폭등했다.

또 장거리 운송료 상승 및 2004년 1/4분기 정기보수 계획에 따른 공급부족 전망에 따라 1월 아시아 SM 가격이 강세를 더해갔는데, 특히 Elba Singapore가 기계적 결함으로 플랜트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1월 가격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Elba는 촉매 전환 및 국부적인 플랜트 보수에 들어갔으나 플랜트 가동을 중단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100% 가동률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Elba 루머로 인해 여러 참여기업들이 Cargo 물량을 대량으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SM 가격 상승행진도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M 가격추이



한편, 미국의 SM 가격은 1월23일 FOB US Gulf 파운드당 37.50-38.00센트로 톤당 평균 832달러를 기록해 16달러 상승했으며 유럽가격은 FOB Rotterdam 톤당 790-800달러, 1/4분기 계약가격은 톤당 717-742유로를 형성했다.

<Chemical Journal 2004/01/30>